



여론의 과거는 여론 연구의 미래를 돕는가? 여론 개념의 지성사적 재조망과 여론 연구의 함의 찾기

유용민 인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여론은 일상적 학술적으로 무비판적이고 관습적으로 쓰이지만 역사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지속된 적이 없는 개념이다. 당대의 사회정치적 기술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존재론적인 형식으로 지배적 의미의 지속적 변화를 겪은 여론의 당대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사유에 의존하는 분절화된 여론 연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여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긴 역사부터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여론에 관한 학문적 역사의 과정에서 형성된 영향력 있는 주의주장과 문제의식들 그리고 이론적 실천들을 복기하는 조망적 작업을 통해서 여론 연구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긴장과 자극의 지점들을 길어 올려 보고자 했다. 계몽주의 여론 사상의 탄생부터 1900년대 초반 여론조사의 계발과 여론산업의 부상 그리고 21세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혁명이라는 기술-역사적 국면에 주목하여 여론의 존재론적 형식과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과정에서 여론에 대한 당대의 이론적 문제의식들이 어떻게 재형성되어 왔는지 고찰하면서 오늘날 여론 연구의 패러다임 상의 함의를 고찰했다.

KEYWORDS 여론, 여론 연구, 패러다임, 표현, 추출, 계산, 구성주의, 계몽주의

* eudemonia38@naver.com

1. 여는 말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혹은 지배적 의견이라는 일상적 의미를 가진 여론(public opinion)은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공공 행정 등 공적 영역에 관계된 거의 모든 학술적 논쟁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살아 있다. 여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권력과 제도는 여론에 반응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인식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어떻게 적용할까를 둘러싼 방식 상의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부정하기 어려운 현금 가치를 가져왔다. 또한 학술적으로 여론은 정치학에서 미디어학 그리고 사회학을 넘나드는 현대 사회과학의 초학제적이고 간학제적인 개념으로 탐구되어 왔다.

대체로 여론이라고 하면 국가의 의견도 아니고 정부의 의견도 아니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특정 이익 집단의 의견도 아닌 사회 전체 혹은 다수의 의견 또는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해된다. 물론 공통이라 하면 다수나 전체에 가깝기는 하지만 여론을 다수성으로 한정하면 안되고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들 자체로 포괄하는 것이 기술 상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소수의 의견도 여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을 지나치게 기술적으로만 이해하면 여론이라는 개념의 가치에 문제가 발생한다. 헛소문이나 퀘변도 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어에서는 이 표현에 여론이라는 단어의 일부를 이루는 ‘공적(public)’이라는 표현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사적인 의견과는 어떤 식으로든 대립되는 의견이라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여론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엄밀히 보면 의견(경험적인 것)과 공공성(규범적인 것)이 결합된 개념이다. 이 대목에서 여론이라는 말은 일상 수준에서의 용법과는 달리 그 의미를 둘러싸고 이론가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개념이다. 무엇이 공공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공공성을 탐구하는 다양한 학문분과들의 거의 모든 이론가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 물론 사회과학자들은 흔히 '시민적 이익'을 공공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때 말하는 '시민(성)'이 누구(무엇)인지는 또 다른 이론적 논쟁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여론 개념 자체도 학술적으로나 대중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쓰여 온 현실과 달리 그 의미를 둘러싼 지적 합의가 존재한 적이 없다 (Childs, 1965).

그러나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술적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를 조금 뒤로 제쳐놓고 여론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지나쳐 걸어진 길을 살펴보면 오히려 여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일관성이나 특징들 또는 추세나 경향성은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의견을 표현, 기록, 저장, 공유, (재)가공할 수 있는 미디어 기술이 꾸준히 발달하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에 접근 또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읽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중의 역량 또한 강화될 수 있게 되면서 여론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 기대는 더욱 더 큰 주목을 계속해서 형성했다. 20세기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법의 발달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데이터 과학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은 급격한 도약을 맞이했다. 이 결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즉 여론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있는 것인지란 물음과 별개로 여론이라는 개념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지니는 중요성과 의의는 더욱 커졌다. 오늘날 - 전통적 여론조사보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에서 - '여론을 조사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의존이 가열된 양상은 바로 그러한 맥락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하지만 여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심화되면 될수록 오늘날 여론이라는 말과 관련된 현상은 더더욱 문제적이고 심각하게 논쟁적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은 그 의미가 당연한 개념이 아닌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옳다.

여론을 가공하는 기술적 역량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 또한 커졌다. 그러한 위험은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론이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케팅과 선전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로 우리 앞에 실존하고 있다. 여론의 품질 즉 가치의 혼동도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제 아무리 과학적인 오차 없이 측정된다 하더라도 절차화된 과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측정된 의견의 수량적 분포를 확률론적으로 알려줄 뿐 어떤 의견이 더 질 좋은 의견인지는 말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 현대 정치가 여론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여론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탈안정화 되는 징후들도 관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다수 의견에 정치적 대표성을 절대시하고 소수 의견은 묵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복잡성을 다수결주의라는 단순화된 양식으로 대체하려는 정치문화도 목격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기술들이 정교화됨에 따라 ‘의견들을 파악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의 여론산업’은 대중의 의견을 제도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위해 요구한 근대 민주주의를 둘러싼 초기의 기대와 달리 대중을 감시하고 대중의 선호나 취향 혹은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를 통제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길러내는, 즉 여론을 감시, 통제, 또는 훈육적으로 길러내는 판옵티콘적 기제라는 의미에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론의 기능적 병폐는 다층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학의 범주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위험과 관련하여 여론 연구는 1)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에 관한 과학적 정확성, 신뢰도,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2) 여론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공급자로서 미디어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 3) 그리고 기술적으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여론 정보가 공적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는 문제에 학술적인 주목을 집중해 왔다. 이에 관한 논의들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그리고 여론조사 연구라는

미디어 연구의 분과화된 영역들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시도되어 오면서 다른 현대 사회과학의 학문 분과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론에 관한 지식 생산의 장 또한 분절화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절화 경향 속에 위치한 여론 연구는 여론 현상을 각각의 분절화된 개별 요소들로 쪼개어 그 요소들로 환원하는 기계론적 접근에 충실함으로써 여론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그 기능이 갖는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여론 연구의 전문화를 성취해 내고 있지만, 기계론적 사유에 의존하는 사유의 방식은 여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습화된 지적 이해를 여론에 관한 인간의 실질적인 경험 그 자체 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여론 연구의 전체를 낫설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상식과도 같은 요소지만, 실제로 디지털 시대에 경험하는 여론은 그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낫설고 기괴한 형식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뿐일까? 역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날 일상 행위자들은 물론 사회과학자들과 여론 전문가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여론’이라는 개념은 과거 이 개념이 학문적 용어로 부상한 계몽주의 시대의 ‘여론’에 관해 공유된 의미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과거 여론은 물리적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육성으로 표출되는 형식(voicing)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를 통해 여론이 매개되면서 담론(discourse)으로 재현되는 구성주의적 존재 양식을 거쳐, 오늘날에는 과학적 여론조사와 데이터 마이닝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목소리 표출과는 관련이 희미해진 수량화되고 데이터화된 지배적 형식들로 존재한다. 여론이 언론과 비슷하게 정치체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는 정치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론은 대의 모델(representation), 결사 모델(assembly), 관찰 모델(observation) 등 다양한 모델들로 존재하는” (김선호, 2012)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이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회정치적 조건,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미디어 기술과 환경의 성격에 따라 여론이 인식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달리 형성되어 왔다는 것은 여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 지형 자체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여론과 사회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한 갱신해 가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여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는 논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여론이라는 것을 무비판적 혹은 관습적으로 쓰고 있다. 여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유의 방식이나 인식론적 맥락 자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논의는 더더군다나 찾기 어렵다. 이 중에서 여론이라는 개념 자체를 당대 여론이 터잡을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이론화 하는 성격의 논의로는 양승목(1997)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는 1960-70년대 떠오른 지식의 사회적 구성성(e.g., Berger & Luckmann, 1966)에 주목하는 구성주의 관점에 주목해 여론의 성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그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총체적으로 타당하거나 질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여론은 대중과 매스미디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생각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시화된 상호작용이나 대중의 의식적 노력 없이도 비가시적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여론이 언론의 담론과 공중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명제는 오늘날 여론의 성격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론적 틀로는 부적합하다. 꼭 이 이슈를 다루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오늘날 여론 이론이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이나 여론조사 보도의 효과 같은 기능적 의제들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연구 주제일 것이란 주목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러한 연구 대상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계론적 사유에 입각한 기능주의적 분석을 뛰어넘어 여론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층위의 논의 또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물음에 나름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글은 여론의 이론적 논의 혹은 논쟁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을 방법론으로 주목했다. 여론에 관한 논쟁의 역사적 공간 안에서 여론이라는 개념 혹은 여론에 관한 인식론적 이해의 방식은 매 시기의 사회정치적이고 기술문화적인 조건과 맞물리면서 단일한 존재 형식과 의미로 지속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세기 과학적 여론조사 기술이 등장하면서 여론은 추출되는 형식(form of extraction)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러한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론에 관한 학술적 이해와 탐구의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형성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오늘날 여론 연구는 한편으로는 여론에 관한 현상을 이해하는 과제와 그러한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론 연구 자체가 품고 있는 여론에 대한 앎의 방식 자체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여론에 관한 일종의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적인 논의를 구성해 보기로 했다. 역사 속의 영향력 있는 이들이 남긴 발화와 주장들 속에 형성된 문제의식들을 복기하는 과거 조망의 작업(Whatmore, 2015) 속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 연구의 지적 작업을 풍요롭게 할 내용들을 길어 올려 보자는 것이 이 글의 의도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이 글은 계몽주의 사상의 부상에 따라 여론에 관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쟁이 출현한 시기부터 여론조사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여론의 존재론적 지형 자체가 급변한 1900년대 초중반 그리고 빅데이터 테크놀로지와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또 한번 질적 도약과 단절을 경험 중인 21세기의 여론-기술적 조건이 여론에 관한 인식론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주목했다. 이에 여론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조성된 사회정치적이고 기술문화적인 조건들 안에서 여론의 개념적 이론적 사고가 어떻게 펼쳐졌고 그 안에서 오고간 이론적 시대, 의심, 질문, 전망을 재확인하면서 굵직굵직한 문제의식들과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이

거시적인 층위에서 오늘날의 여론 연구에 어떤 자극과 긴장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여론에 관해서 오늘날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100년, 200년 전 이론가들이 제출했던 질문들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면 이러한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 여론의 개념적 탄생과 초기 논쟁의 형상: 계몽주의적 전통의 부상과 형성

여론이라는 개념적 아이디어는 16세기 초 마키아벨리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왕자의 목소리보다 일반의견을 따를 만하다는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다수의 목소리 또한 현명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경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Machiavelli, 1517/1996, pp. 115-118). 여론에 내재된 다수성(majority)이 다른 의견들에 비해 현명할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르네상스 인본주의적 발상의 출현은 그것이 당대의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사상의 발아는 17,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와 여론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로 이어졌고, 그 체제 전복적 뉘앙스는 그 당시 정치사상들이 전근대적인 정치체제와 결별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더욱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J. Bentham)은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여론이라는 개념을 적극 수용하였는데, 그에게 대중의 목소리는 권력을 통제하고 이성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보다 대중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상상, 즉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속에서 발견된다. 그에게 여론은 법을 만드는 이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막고, 따라서 그의 철학적 신조로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 즉 최대 다수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중주권의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되었다(Bentham, 1791, 1822). 그의 공

리주의 철학에서 발견되는 여론의 개념적 성격은 ‘공공성’과의 강력한 연결에 있다. 그에게 다수의 의견은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여론은 정치철학적으로 의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대적 형식이다.

“일반 의지는 항상 올바르며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라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사회계약론자 루소(J-J. Rousseau) 또한 계몽주의 시대 여론의 이론가 중 하나였다. 불어로는 ‘Voluntegenerale’, 영어로는 ‘general will’로 표현된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은 사실상 여론 개념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루소의 여론 사상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공중의 의견(opinion of public)과 개인들의 의견들(opinions of individuals)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루소는 현대 속의 민주주의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일반 의지란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모든 이들, 전원의 문제로 하나의 의견이 도출되어 그것이 바로 일반 의지가 된다고 보았다(Rousseau, 1762/1994). 이는 오늘날 여론이란 여론조사를 통해 취합된 개인의 의견의 총합으로 가정되고 있는 인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가 개별 이익의 총계와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국민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성의 중요한 정치적 그리고 의사소통적인 조건으로 보았으며(Arendt, 1963, pp. 67-68), 따라서 여론이란 개개인간의 이성적 상호작용을 핵심 요소로 하는 것이었다. 물론, 엄밀히 말해 루소의 일반의지는 오늘날 여론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 아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산출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현대의 여론 개념과 달리 루소의 일반의지는 그런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상 루소의 일반의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다른 계몽주의의 거장 칸트의 경우 그의 주요 저작에서 여론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는 여론이나 공공성(publicness)에 관한 근대적 개념의 기틀이 확립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이론가다. 그의 계몽주의 사상 안에는 공공성을 실현(realizing)하기 위한 철학적 원칙으로 공적 이성의 활용(use of public reason) 그리고 진실 확립의 필수 전제로서의 의견의 표명이라는 주제를 계몽된 세계의 전제 조건으로 끌어들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사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사고되고 그에 따라 사적 의견이 객관적 확실성과 주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하면서, 특히 의견이 공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건을 계몽의 중요한 실현 조건으로 제시했다(Kant, 1786, p. 325).

여론 개념의 이론의 역사에서 칸트가 가져온 변곡점은 공공성(publicness)의 조건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율성(autonomy)의 맥락이 아닌 정 반대, 즉 정치와 윤리를 규범적으로 연관시키는 강압(coercion)적 맥락 속에서 여론을 이론화 했다는 점이다. 칸트는 “모든 행위, 특히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그것에 내재된 격언이 공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나쁘다”라고 말함으로써(Kant, 1795/1983, p. 135), 공공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의견에 대한 공적 표현은 자유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공개성(publicity)의 의무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본 칸트에게서 권력의 통제와 제한으로 기능하는 여론이 가진 공공성은 공개성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로 기능하는 공공성의 의미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었다.¹⁾

벤담, 루소, 그리고 칸트의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의 ‘여론’은 어디까지나 철저히 ‘공공성’을 담보하는 규범적 힘을 가진 것으로 추구되었지만

1) 물론 이러한 서술은 조금 느슨한 것인데, 가령 루소 또한 자유로운 의견의 공표가 ‘강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일반의지의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즉 계몽을 실현하기 위한 공개성의 원칙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의견을 표현할지 말지가 철저히 개인의 권리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일종의 ‘의무론적 윤리’로 상상되었다는 점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여론에 대한 개념적 사고는 대중이나 인민, 즉 다수를 중심에 놓는 민주주의를 위한 진보적 열정으로 추동되는 사유 안에서만 머물진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적인, 편협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여론의 존재 가능성이나 여론이 어떤 의견보다 더 뛰어난 의견인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의 의견이 엘리트의 의견보다 더 나올 수 있는지에 관한 솔직한 문제제기들은 여론의 지성사 안에서 늘 의심받는 주제였다. 계몽주의 시대에도 여론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은 여론에 대한 불신의 인식론적 의심을 제공한 또 다른 계몽주의의 거장 헤겔(G. Hegel)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여론’을 상찬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헤겔은 반대로 그러한 기대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개인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공표되는 근대적인 공개성의 가치가 개인과 다수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인양 찬양한 반면, 헤겔은 여론이 국가를 지배하는 상황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했다(Hegel, 1821, p. 251). 여론을 무지하고 저속한 사람들의 것으로 깎아내린 아리스토텔레스에 동의를 표했던 헤겔은 〈법철학(Philosophy of Rights)〉에서 “여론 안에서 모든 것은 거짓이거나 진실이다. 하지만 여론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위대한 인간의 일이다. 여론을 경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위대한 일을 만들 어낼 수 없다”(Hegel, 1821, p. 254)라고 말함으로써 여론 그 자체에 합리적 이성성을 부여하는 일을 반대했다.

헤겔은 모든 이들이 공적 사안의 국가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비현실적으로 간주했는데, 그 이유는 여론이 (혹은 공중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안에 내재된 주관성(특수성)과 객관성(보편성) 사이의 모순을 초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헤겔의 결론은 국가(이성)가 여론을 이해하는 일은 합리적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 말은 변증법(dialectics)의 철학자 헤겔에게 여론은 국

가 이성과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비판적 검토 대상일 따름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헤겔이야말로 여론을 그것이 가진 다수성이나 공통성의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탁월함의 문제, 즉 품질의 문제를 간파한 여론 이론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헤겔은 여론에 내재된 모순성에 주목함으로써, 여론의 본성에 대한 이후의 논쟁의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여론이라는 것이 가진 힘을 헤겔 또한 주목하고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헤겔은 여론이 공개성을 손쉽게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 것이며, 그것이 선동에 의해서 관리 또는 조작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론 개념에 내재된 단순 '다수성'에 대한 정치사상적 반대를 통해서 여론의 본성에 내재된 어두운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20세기 월터 리프먼의 유명 공중(the Phantom Public)은 바로 헤겔적인 고민의 20세기적 재사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

여론에 대한 헤겔의 이러한 의심론과 회의주의는 20세기 미국 그리고 일부 유럽에서 여론에 관한 정치과학과 사회심리학적 전통의 태동과 더불어 재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 19세기로 넘어와 여론에 대한 미국 민주주의적 관심이 헤겔로부터 어떤 직접적 연관을 받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 사상가 토크빌은 존 스튜어트 밀과 교류하면서 여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

2) 리프먼 또한 여론이 가진 한계, 즉 여론은 언론에 의해 선택된 현실만을 인식할 수 밖에 없는 대중 속 개개인들의 편협한 해석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Lippmann, 1922), 이는 보통 사람의 의견들을 따르는 사회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특히 리프먼의 사상은 일차적으로는 여론의 위협성과 여론 조작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로 후대 이론가들에게 널리 읽혔지만, 동시에 리프먼의 성찰은 도대체 진정한 여론이란 무엇이고, 무엇이여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기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물음의 과정에서 언론과 지식인을 비롯한 엘리트의 역할에 보다 주목한 리프먼의 사상은 따라서 계몽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계몽주의 여론 사상의 역사를 후대로 연결시킨 중요한 가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으며, 여론 논쟁에 새로운 방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이 권력에 대응할 효과적인 민주주의의 무기이면서 동시에 소수자들과 반대파를 제압하는 사회적인 억압과 감시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위험성에 주목했다(de Tocqueville, 1835/2010, pp. 1148-1149). 여론은 개인의 마음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혁신적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공포를 제공하며,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환영으로서의 여론(empty phantom of public opinion)’이 가진 부정적 영향력에 주목한 토크빌은 다수 대중이 만드는 여론의 파괴성, 그리고 폭정으로서의 여론 정치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계몽주의 시대 정립된 여론과 사회적 통제의 관계에 대한 이론화 방식 안에 내재된 감시 패러다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³⁾ 여론에 공적 힘을 부여하려는 계몽의 사상 안에는 여론을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기제적 요소, 즉 사회 전체에 걸쳐져야 할 시스템이라는 요소가 내재적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론을 합리성이 아닌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한 노엘레 노이만의 사례(Noelle-Neumann, 1974)를 고려하면 토크빌 이후 여론을 사회적 통제로 재인식하는 이론적 시도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은 확실히 미국적 사회(과)학의 맥락 안에서의 사조로 떠올랐다. 대중사회의 출현에 대한 미국 사회학의 주목은 대중이 확보하게 된 정치적인 힘과 그들의 도덕적인 권위에 대한 토크빌적 문제의식을 여론에 관한 이론적 재주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가령 사회의 중심적 사실과 중심적 문제들이 가진 사회 통제(social control)적 힘에 주목한 로버트 팍(Park, 1921, p. 20)이나 로스 그리고 쿨리를 보면 이들의 논의에서 여론은 더 이상 권력을 통제하거나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소수 의견을 관리하는 민주주의의 대표

3)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노엘레 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 이론은 다수의 목소리, 즉 여론은 구성원들을 감시하는 힘을 가진 것이란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확실히 되지 못했다. 쿨리는 여론을 공중이 행사하는 잠재적 권위(authority)로 설명하였고(Cooley, 1909, p. 131), 로스는 공중의 자기-통제로서의 여론의 가치보다는 언론에 의한 대중의 순응과 훈육의 맥락에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Ross, 1901).

여론을 그것이 제공하는 위협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론적 논의의 역사의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을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구성 요소로서 공중의 것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이론적 노력의 역사 또한 존재했다. 그러한 논의에서 존 듀이(J. Dewey)와 페르디난드 톤니스(F. Tönnies)는 여론에 대한 일반사회학적인 또는 공공철학적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이들은 여론을 단순히 개인 의견의 총합(개인들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의견들이 아닌, 공중의 여론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듀이는 〈공중과 그 문제들〉에서 여론의 담지자로서 공중의 의미를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로 확대하였으며(Dewey, 1927/1946, pp. 15-16), 선거보다 여론이 민주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강력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 견해까지 밝힌 바 있다.⁴⁾ 톤니스는 사회에 관한 일반 이론 내에 여론의 지위를 관습과 법에 뒤이어 사회적 의지의 집합적 형식 중 하나로 정식화하고자 했다(Tönnies, 1922). 그에게서 여론은 게마인샤프트 사회(gemeinschaft)에서 게셀샤프트로(gesellschaft)의 이행이라는 근대적 조건 안에서 사회적 의지의 합리화된 형식의 일반 이념형으로 긍정되었다. 그들 모두는 “민주주의를 위해 기능하는 공중의 조건”(Dewey, 1927/1946, p. 137)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론 이론가들이 해야 할 일은 “여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공중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4) 듀이는 여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선거보다 여론의 민주적 정당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시민적 의무감에 이끌린 습관적 행위일 뿐이며 이것은 이성의 공적 활용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Dewey, 1927/1946, p. 135).

그들이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여론 지도자 또는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공중이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일이 중요”(Tönnies, 1992, p. 9)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르드의 기여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여론(l’Opinion)과 군중 및 공중의 관계는 … 여론이 생겨나는 작용 중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 그것은 사회적 관계 즉 대화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학자들은 이 기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Tarde, 1901, p. 7)”⁵⁾고 지적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지만, 여론에 대한 규범적 이념형적 논의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이상길, 2003). 그럼에도 공중과 군중 사이의 경계를 확립하는 일과 관련한 경험적 분석의 필요성을 맹렬히 강조하는 그의 어조 안에서 여론의 규범적 가치와 그것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반면 미국에서도 로버트 팍(Park, 1904)과 블루머(Blumer, 1948)의 시각들에서 공중은 여론의 집합적 담지자로 상상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여론에 관한 이론화에서 중요한 측면은 타르드에게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닌 집단 간 상호작용이고, 여론 연구의 중심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학적 문제였다. 때문에 여론의 성격은 사회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지, 오늘날의 대부분 여론 연구처럼 개인이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어떤 의견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5) 사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론가들은 여론조사 시대의 여론의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여론의 이론을 ‘과학화’하고자 했고 그럴 수 있다고 표명한 이는 공중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기여한 타르드라 할 수 있다. 그는 여론 형성의 일반화된 요인인 ‘대화’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진정한 ‘과학’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대목에서 그렇다.

다시 듀이로 돌아가 보면, 여론 연구는 공중의 가능한 조건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종합할 수 있다. 가령 듀이는 “우리는 이전 까지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수단을 갖지 못했고, 따라서 사고와 영감을 소통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공통의 것(common)⁶⁾을 만들 수 없었다.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는 한 공중은 드러나지 않으며, 제 모습을 갖지 못한 채 남아있다”(Dewey, 1927/1946, p. 142)고 지적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언론, 교육과 같은 시민의 현대적인 계몽의 조건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듀이가 미국 사회의 미래를 보다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꿈꾸면서 의사소통적 민주주의와 여론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퇴니스의 경우는 부르주아 계급 혁명과 구체제 사이의 갈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조건 안에서 여론은 필수적으로 계급적 투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론의 형성을 돕는 근대적 요소로서 언론 자유가 제약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그 대안에 관한 논의로 넘어갔는데, 퇴니스 또한 교육의 문제, 즉 공중의 계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론을 계몽주의적으로 사고했던 이들 여론의 이론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의 고취 그리고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라는 요인들, 즉 “공중의 부상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향상된 조건들”(Dewey, 1927/1946, p. 157)에 대한 주목에 있어서 비슷한 의견의 일치를 남겼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교육의 확장은 사실상 계몽된 공중의 여론을 위한 도약대로 제시됐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조건에 대한 기대는 현실에서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의 계몽적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은 여론의 이론가들이 민주적 공중의 형성 가능한 조건으로 주목했던 요인들이 실제 현실에서 숙성돼 가면서 등장한 것은 바로 과학적 여론조사(opinion poll)였기 때문이다. 과학적 여

6) 공통의 것이란 바로 ‘여론’을 의미.

론조사의 등장과 더불어 사회와의 전체 관계 속에서 여론을 비추고자 했던 이론적 분투의 시대는 쇠퇴하고 대신 여론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환원론(reductionism)의 시대가 과학적 여론조사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Price, 1992).

이러한 환원론은 여론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사고가 도입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첫째 복잡한 사물은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단순한 것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둘째 인간 행위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20세기 행동과학의 논리다. 이러한 논리들은 “여론은 단순히 따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의견의 집합이 아니며,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된 구성적 산물이다. 이는 그것은 1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든 배와 100명의 사람들이 각자 만든 100척의 배와 다를 수 있다는 것”(Cooley, 1909, p. 121)이라는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3. 여론 조사 시대의 부상과 여론 연구의 인식론적 전환

1900년대 초반 미국의 경험적 정치과학의 성장 그리고 심리과학의 발달은 여론 이론에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다. 그러한 흐름의 형성에 기여한 이들은 여론의 비판적 합리성과 공공성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했다(Binkely, 1928). 1920년대가 전조였다면 1930년대는 본격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1924년 전미 정치과학 컨퍼런스의 라운드 테이블(the Round Table on Political Statistics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은 이러한 변화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자리로, 벙클리의 평가에 따르면 이 회의를 통해서 여론이라는 개념적 주제는 비판적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라는 지위에서 격하되었으며 여론은 더 이상 합리화(rationalization)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계몽주의 이래의 규범적, 비판적 지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탈 규범화된 여론에 관한 개념적

사고가 대두될 수 있는 조건(Binkley, 1928, p. 389)은 무르익었다.

여론을 공적 혹은 공공적 의미의 이성의 형식 혹은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질문한 여론 이론의 계몽주의적이고 유럽적인 전통과 대립하는 이러한 소위 '미국적인' 전통의 출발은 여론에 대한 과학적 달리 말하면 실증적, 또 달리 말하면 행정주의 사회과학 연구 관행의 부상 그리고 여론조사 산업의 본격적 등장과 궤를 같이 한다. 1932년 조지 깁럽은 자신의 장모 바브록 밀러(Ola Babcock Miller)가 아이오와(Iowa) 주 선거에 출마하자 여론조사를 활용해 장모의 당선을 성공적으로 도왔으며(Hawbaker, 1993, p. 107), 이러한 성공은 1934년 미국여론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의 설립과 깁럽(Gallup Organization Corp.)의 창립으로 이어진다. 1932년 미국 유권자들의 태도와 선택에 대한 하우스 어소시에이트(Houser Associates)의 여론조사(Norpoth, 2019) 등 서베이를 통해 개인 의견을 측정하여 여론을 파악하는 관행들이 학계와 여론조사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역사적 사변(critical event)과 더불어 여론을 측정하고 싶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용이해졌고, 여론에 관한 학술적 논의에는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논쟁거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제 여론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학적 질문에서 개인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과학적인가의 문제를 향해 달려갔다. 통계학과 더불어 현대 여론조사를 떠받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수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실증적 척도들은 이 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e.g., Thurstone, 1928). 비판적 여론 연구자들이 이러한 진보가 야기할 변화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급성장한 여론 산업의 뒤를 발빠르게 쫓아가기에는 그 추세를 반전시킬 비판 이론의 실천적 영향력의 부족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이후의 여론의 개념적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여론이 마치 공중 같이 사람들을 대

표할 수 있는 어떤 전체(the representatives)를 통과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이란 믿음에 있다(Bryce, 1888/1995, p. 919). 이러한 사상의 출현에서 조지 깰럽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 Bryce)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곧 보통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형식을 여론에서 찾은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의 '구상' 안에서 여론은 그것의 경험적인 확인 가능성, 즉 여론 이론의 경험적 타당성 측면에 고민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수록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중요한 공적 현안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을 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어떻게 월, 혹은 주 단위로 사람들의 생각, 의지를 측정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의 비판적 전망(Bryce, 1888/1955)이 틀렸음은 훗날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의 맥(The pulse of democracy)>에서 “현대적 여론조사는 브라이스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답”(Gallup & Rae, 1940)이라고 선언한 브라이스의 사상적인 제자 깰럽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여론의 개념적 성격 안에는 이성의 자기 반성이나 공적인 의견의 표명과 교환, 공동체 안에서 사고하기(칸트의 인류 전체의 사고로서의 공적 이성) 같은 요인들 대신 개인 의견들의 통계학적 수량화(quantification)라는 요인이 주입됐다. 알빅(Albig, 1939)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론조사는 사물을 수량화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태어난 것이었고 어떤 다른 방법보다 관찰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특수한 관점으로서의 이론으로부터 독립적인 ‘방법’이었다. 블루머 또한 1948년 여론조사에 대한 비평에서 “여론조사는 그것이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의 대상과 관련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특징을 정의했다(Blumer, 1948). 여론은 새로운 인식론적 틀, 즉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수량적으로 객관화된 사실, 즉 가치중립적인 탈-규범

화된 개념으로 대체되었다.⁷⁾ 즉 여론은 인식론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론가들이 여론을 규범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한 사회 내에서 민주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론조사의 등장은 그러한 규범적 관심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 시대의 여론은 여론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고려없이도 여론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론으로부터) 독립적인 기술이었고(Savage & Burrows, 2007), 따라서 여론은 어떤 규범적 힘이나 원천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개념’이 됐다. 물론 여론에 관한 이론의 역사 전반에서 여론조사 등장 이전의 시기에 그와 같은 규범적 이론화의 시도에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다(Savage & Burrows, 2007, p. 889). 하지만 여론조사의 등장은 그러한 규범적 신뢰의 근거를 다른 방식으로 찾은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말이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현실에서 의견의 차이나 부족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발견(Childs, 1965)으로 주목을 형성했지만 한편으로 여론에 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넘어선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컨버스(Converse, 1987)의 평가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여론이라는 것을 엘리트들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는 도구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7) 물론 여론조사의 등장 이전부터 수량화의 기술은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갖는다. 18, 19세기에 이르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량적 사회과학을 발전시켰으며(Hacking, 1990; Porter, 1986). 이와 더불어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규범적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받아들이는 계량적 사회과학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다(Desrosières, 2016, p. 184). 규범보다 경험적 근거를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의 반-규범적 수량과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확실한 주류로 성장하기 시작했다(Smith, 1994). 물론 우리 미디어 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이에 소위 행정 연구와 비판 연구 사이의 갈등 또한 분출되었다(Lazarsfeld, 1941).

를 약화시킨다'라는 주장과 '여론조사는 민주적 삶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도구'라는 입장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 이에 관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종합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에서는 여론을 대중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관심이, 다른 한편에서는 여론이 어떤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론이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기능적 답을 찾으려는 관심은 상호 경험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분열이 상호간의 대등한 이론적인 경쟁을 벌였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여론에 관한 논의는 여론조사의 타당도 (validity) 그리고 신뢰도(reliability)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재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는 여론 연구의 지배적 연구 대상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이 결과 여론과 공중은 결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여론에 대한 규범적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했던 이론적 전통은 자극-반응(stimulus-response)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환원되었다. 1939년 워너는 여론은 명확하게 진술된 문장과 질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구성되고, 그에 따라 기능한다고 말했으며 (Warner, 1939, p. 377),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알포트 (G. W. Allport)는 여론을 '많은 개인들의 상황'(multi-individual situation)으로 환원했다(Allport, 1937, p. 9). 이러한 사상을 스스로 실현하였고 동시에 받아들인 갤럽은 "여론은 공동체에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사람들(즉, 개인들)이 갖는 관점의 총합"(Gallup, 1957, p. 23)이라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현대적인 정의를 완벽하게 제시했다.⁸⁾

8) 이 과정에 대한 복기가, 여론 연구가 탈규범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이후의 여론 연구에서도 규범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여론조사를 활용해 국가가 수립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타당한 과학이라는 층위에서 여론의 중요한 규범적 측면을 재설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이들과 그 절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요컨대 여론조사는 단순한 도구로 출현했지만 그것은 여론에 대한 관념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여기에는 여론조사가 갖는 구조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로는 여론과 공중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규범적 연관에 관한 상상이 폐기되고, 공중의 의견이나 일반 의지로서의 ‘여론’은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지만, 여론조사라는 사적이고 익명화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추출되는 여론조사는 여론이라는 개념 내에 그전까지만 해도 내재되어 있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더 이상 진전시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셋째, 여론 현상은 더 이상 인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에 의해 개입되고, 유도되는 맥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여론은 보다 자연과학적 현상(수량화 측정, 통계학적 절차)으로 재정의되었고, 끝으로 여론은(여론조사로 인해) 제도화된 정치 과정의 일부에 완벽하게 편입됨으로써,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질서 안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재정의됐다.

여론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공중도 필요 없고 공중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전제, 상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개념이 되었으며 보다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집합적인 의견 표명, 즉 표현과 목소리가 없어도 여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갤럽은 “언제 어느 때든 다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Gallup, 1938, p. 14)고 말하면서, 마치 정치 엘리트들과 시민 의지 사이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지만, 어찌 보면 정치적 대표자들과 서베이 응답자들 사이에서 공적으로 계몽된 이성과 그러한 이성이 낳은 공공적 의견의 형식은 오로지 ‘방법론’ 그 자체였을 뿐이라는 혹독한 비판도 가능할지 모른다. 따라서 “서베이 없이는 여론을 알 수 없으며, 여론은(공중의 집합적 의지의 형성 및 표출이 부재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Osborne & Rose, 1999)는 주장도 가능해졌다.

규율을 요구하는 것(Porter, 1995, p. 34)이었다.

여론조사가 가져온 여론의 인식론적 성격 상의 변화는 여론에 대한 현실 비판적 논의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스본과 로스는 여론조사가 유사, 허위 여론을 만든다고 비판했으며(Osborne & Rose, 1999), 블루머 또한 여론조사가 여론을 절차(procedure)로 환원시키면서 여론 조작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하였다(Blumer, 1948). 유럽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순 다수의 의견이 공론(公論)으로 연출되면서, 여론조사는 공론과 단순 다수 의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은폐시킨다고 간주한 부르디외는 여론은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인공적인 것일 뿐 그것을 여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착각이나 환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Bourdieu, 1972/1979). 긴즈버그는 “여론조사는 여론의 파괴적 힘을 조금 더 온순하고 순치된 것으로 길들이고 보다 국민투표적인(즉 제도적 맥락 내로 가두는) 것으로 변형시키면서, 그 결과 20세기 정부와 의견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다툼을 보다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변형시킨다”고 비판했다(Ginsberg, 1982, p. 2).

18, 19세기 즉 여론조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공중의 사회’였다면, 20세기 여론조사 시대가 탄생하면서 선진화된 서구 세계는 밀즈가 말했던 ‘대중의 사회’(Mills, 1959/2000)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서구 자유주의 질서가 확장되면서 이들은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배받는 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개별적으로 존재함으로써 공중으로서의 잠재력과는 멀어지는 대중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구조적 경로 안에 갇히게 되어갔다. 그에 따라 공중이 여론의 담지자로서 순수하게 자율적인 존재일 수 있는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대상이 되어갔다(e.g., Mills, 1956/2000, p. 303).

여론은 이제 선거와 더불어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의견에서 ‘공통성’이나 ‘공공성’ 같은 개념적 무개를 파악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졌으며, 한 사회의 일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계몽적 공중에 대한 기대도 한풀 꺾였다. 과거 타르트

가 제안했던 것과 유사하게, 여론에 관한 연구가 사회적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Blumer, 1948, p. 543) 그러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탐구의 성격을 잃어서는 안된다(Adorno, 1964/2003, p. 2918)는 문제의식은 비판적 이론가들에 의해서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덕분에 여론에 관한 연구와 사회에 대한 연구는 관행 상 성공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 여론에 대한 학문이 여전히 유럽과 미국, 즉 '서구'라는 역사적 한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들 세계가 어떤 사회정치적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여론의 지성사에서 간과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68혁명, 미국에서의 베트남 반전운동, 제3세계의 비동맹운동, 스탈린주의(Stalinism)에 대한 동유럽에서의 자유화 운동 등등 전지구적으로 제도, 사회, 국가, 기성 질서에 대한 신세대들의 광범위한 저항이 있었다. 이 시기 전세계적인 대중운동의 부상은 '여론 연구'에 있어서 아이러니한 역사적 국면으로 명명되어야 한다(Splichal, 1999, 2022). 경험적으로 대중들의 목소리는 폭발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현실의 변화가 여론과 공중 사이에 대한 이론적인 재주목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웠다.⁹⁾ 오히려 제도 학문 공간에서 여론 연구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행정주의 사회과학의 일부의 지속과 더불어, 기능주의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을 향해 계속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론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산업이 구축한 여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추세를 반전시킨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이때부터 차이와 다양성에 주목하고 해체에 관심을 돌리기 시

9) 68혁명과 미국 내 반전운동에 뛰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당시 공론이란 지배적인 구조의 결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다는 점(송두울, 2021)을 참고하면, 공론이나 여론 같은 개념이 신사회에 대한 지적 관심과 도덕적 열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작한 탈-근대주의 이론들이 부흥했지만 그러한 흐름은 서구 계몽주의에 기원한 여론(공론)과 공중이라는 개념에 내재된 보편성을 재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해체하거나 보다 탈근대적인 의미로 대체하려는 시도로 존재했다. 사회과학의 영역과 공공철학적인 논쟁에서는 여론과 공중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버마스가 제안한 공론장(Habermas, 1962/1991)의 공간화된 조건(Mah, 2000; O'Mahony, 2013, p. 415)에 대한 관심으로 급격히 이동했으며 공론장 개념은 여론과 공중에 관한 일반 이론을 확립하려고 했던 시도들에 뒤이어 민주 정치와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조망하는 핵심 개념으로 부상했다. 하버마스적인 사고는 일종의 유행처럼 비판적 사회 이론과 민주적 정치 문화에 필수적인 것처럼 간주되면서 여론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을 자극한 것은 맞지만(Calhoun, 1992, p. 41; Fraser, 1997, p. 70), 이 개념은 공적 담론, 즉 공론의 개념적 복잡성을 단순한 공간적인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확실히 하버마스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버마스 이후의 “여론 연구자들은 여론의 흔적을 공론장의 구조 변동과 그 발전 차원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신문,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으로 급속도로 이동”(양승목, 2019)하기 시작했다. 즉, 공중에 대한 전통적 관점, 즉 여론을 창출하고 표현하는 공중 개념의 우선성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버마스적 공론장 개념에 내재된 제약과 배제성에 대한 주목과 속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서구 자유주의-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제약된 공중의 민주적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불만은 여론과 공중의 가능성을 다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대항 공론장(counter public sphere)이나 대항 공중(counter public)이라는 대안적 개념들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로 연결됐다. 그러나 데 브리즈가 지적한 것처럼(de Vreese 2007, p. 5)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은 공론의 영역을 장소의 세계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커뮤니

케이션의 민주적 네트워크(의 가능성)를 성공적으로 기술했을지는 몰라도 공중의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는 담론-윤리학적 문제로 귀결시켰을 뿐(미실현된) 공중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작업으로서 효력이 컸었는지 말하긴 어렵다.

민주주의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적 이론화의 노력들이 부상한 1900년대 후반부에 이르러 여론의 민주적 규범성, 공공성 같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피시킨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Fishkin, 1991)나 소규모 공중(mini public)(Dahl, 1989, p. 109; Goodin & Dryzek, 2006)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시 모색되었다. 이들 ‘숙의 민주주의자들’이 여론의 공공성을 재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은 민주주의 이론들 안에서야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혐의로 비판받아 왔지만 적어도 규범적 힘을 갖춘 여론을 재발견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나름의 급진성을 갖추었다고 재평가할 수 있다. 이들의 현대 민주주의적 기획들은 루소, 벤담, 칸트, 퇴니스, 듀이,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 등 고전적인 여론의 이론가들이 이론적으로 채 실현하지는 못했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여론의 개념을 재발굴하려는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분투한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결 안에서 공중의 숙의적 역량과 그러한 역량의 형성과 축진을 돕는 미디어의 역할은 중심적 요소로 남아 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규범적 힘을 갖춘 여론을 발견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깐렘의 말마따나 “연방적인(federal) 사안에 대해 비용과 어려움의 한계를 초월하여 공중의 의견을 비추는 절차(미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일(Gallup, 1971, p. 227)”, 즉 절차화된 여론이야말로 여론의 표준이라는 패러다임적 사고가 현실에서 뒤집어 지진 않았다. 실제로 피시킨은 리프먼의 유명 공중을 뒤집기 위한 의도를 피력했지만(Fishkin, 2009, p. 33) 여론에 정보가 주어진 시민들(informed citizens)의 토론의 결과 확보될 수 있는 의견의 타당성이라는 질적 가치를 도입하는 그의 공론 실험에서조차

여론은 최종적으로 여전히 경험적으로 조작되고, 개인들로부터 측정, 취합되는 환원론적 이해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이 시기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여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진전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여기서 멈추게 된 점은 어쩌면 다수결주의에 입각한 대중 민주주의(mass democracy)로서 미국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 안에서 여론이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환원되는 일은 오히려 적합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여론은 오직 언론의 선택적 의제 설정의 결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나, 그러한 반응에 대한 대중의 후속 반응,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지각적 영향력(the perceived impact)의 측면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은 여론에 관한 새로운 정의에 관한 주목으로 급속도로 확산됐으며(Glynn, Ostman, & McDonald, 1995), 이는 오늘날에도 개인의 지각과 개인들 사이의 인지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여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침묵의 나선, 다원적 무지, 비개인적 영향력 그리고 제3자 효과와 같은 인지주의적인 여론 이론의 분석적인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 이들 개념들 모두 여론에 대한 환원론적 관점에서 여론의 기능적 효과와 그 효과의 조건에 주목하였으나, 여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이론적 관점이나 여론의 공공성을 위한 비판적 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개인에 대한 여론 이론적 주목이 야기한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한 반작용적 노력 또한 뒤따랐다. 여론을 개인 수준으로 환원하여 연구함으로써 발생하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라이스(Price, 1992)는 공중을 보다 역동적인 집합체로 간주하고 공중의 여론 형성 과정, 특히 일시적으로 제기된 쟁점에 대해 형성되는 공중(issue publics)의 의사소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여론 연구의 담론 모델을 제안하였다. 프라이스가 제안한 담론 모델이란 여론에 관한 연구가 개인 수준의 분석과 개인 이상의 집합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상호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

해 여론을 개인 수준과 집합 수준에서 매개하는 언론이 여론을 전달하는 보도자(reporter)이면서 동시에 여론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는 여론 조사자(poll taker)로서 갖고 있는 기능을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Price & Roberts, 1987). 이 모델은 “여론이 생겨나는 그 작용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변함없는 무언가를 찾으면 그것은 사회적 관계라는 기초, 즉 대화”(Tarde, 1901/1989)라고 강조하면서 여론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한 타르드의 요청에 대한 뒤늦은 대답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요청에 대한 화답은 미디어를 매개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개인과 여론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펼치는 순간 자신의 이론적 대전제, 즉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여론을 형해화하는 새로운 사회정치적, 기술문화적 조건과 마주하게 됐다. 그것은 타르드가 강조한 상호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여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환원론적 여론 연구 패러다임 속에서 여론의 궁극적 원천이었던 개인의 의견이 여론을 추출하는 시스템 안에서 길러지는 기술적 조건이 여론조사 시대의 여론의 수량화를 넘어서 여론의 데이터화를 이끄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시대라는 맥락이다.

4. 여론의 데이터화와 전지적 여론 기계의 등장: 데이터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의 부상

오늘날 여론산업에는 전통적 여론조사의 토대 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여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시도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시기에 대한 이론적 종합과 평가는 아직 선부른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이론적 논쟁을 복기하는 논의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대신,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국면이 여론 이론

적 조건과 의미에 대해서 제공하는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과 의견 추출 기술로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 여론이 수량화된 형식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화된 형식으로 다뤄지게 되는 존재론적 조건과 그 잠재적 효과를 여론 개념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고자 했다.

여론의 수량화 형식은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조건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의 핵심 요소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진화를 통해 응답자의 의견을 의식적인 수준에서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응답자가 참여하는 일 없이도 사람들의 의견을 데이터의 형태로 추출하여 이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의 데이터화(datafication of public opinion)라는 새로운 맥락이다.

모든 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데이터화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화(Mayer-Schönberger & Cukier, 2013)가 여론을 파악하는 일과 관련된 영역에도 대규모로 적용됨에 따라 데이터화는 여론의 중요한 존재론적 조건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기존의 여론의 수량화 형식이라는 조건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와는 구별되는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테크놀로지 혹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여론의 지배적 존재 형식은 20세기 여론조사 시대 여론의 지배적인 존재 형식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다른 성격이란 무엇이고 여론의 이론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은 무엇인가?

대량 데이터 세트의 처리 및 탐색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는 기술로, 데이터 마이닝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과 관계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 이 글의 맥락에서 표현을 조금 달리하자면 의견을 캐내고 그것들 간의 숨은 패턴을 찾아 의견의 특성을 드러내는 ‘오피니언 마이닝’은 여론조사와 달리 이용자의 의식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피니언 마이닝은 여론조사와 달리 비밀리에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대한 규모의 이용자들의 의식 아래에서 개인의 태도와 의견을 측정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이 인구의 전수(population)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표본조사에 의존하는 여론의 확률론적 인식론과 달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 전수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여론에 관한 이론적 관심의 역사 안에서 흥미롭게도 여론에 관한 현대 사회과학의 논쟁 안에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Karl Schmitt)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디어에 관한 사유를 호출한다. 슈미트는 “누구든지 자신의 집을 벗어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표출된 의견이 자동적으로 한곳에 집결되는”(Schmitt, 1928/1954, p. 245) 아이디어를 떠올린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매우 흡사한 생각을 떠올렸던 브라이스의 경우 대중의 의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Bryce, 1888/1995, p. 919). 이들이 떠올린 아이디어는 여론에 대한 완벽한 측정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의 보다 직접적인 형식은 간단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모든 구성원들의 모든 생각을, 심지어 디지털 흔적을 분석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속 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여론의 데이터화 양식은 - 흔히 ‘민의’의 왜곡이나 굴절이 수반되는 - 어떤 매개(mediation) 과정이나 대표체(the representative) 없이도 모두의 생각을 대표하는 여론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의 여론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 마이닝 같은 기술은 여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연결하는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중대한 윤리적 쟁점을 불러오기는 하지만 여론조사가 확인시켜주는 여론보다 더 강력하게 여론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의견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 즉 드러나지 않은 의견을 드러나게 하는 공개성(publicity)의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오피니언 마이닝은 기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데이터화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성에 대한 주목은 빅데이터 기술과 데이터 마이닝이 민주적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기술적 잠재력과 정 반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또한 시사한다. 전통 여론조사에서 서베이 응답은 원칙적으로는 조사 대상의 의식에 개입하지 않는 독립적 관찰이 보장되며, 개별 응답자들의 의견은 등가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플랫폼이 설정해 놓은 경로적 힘(가령 알고리즘)에 의해 파생되는 의견이라는 점이다(Annoni et al., 2018).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여론이란 아래로부터 위로 형성된 여론이라는 민주주의적인 사고들과 비교할 때 빅데이터 기술이 제공하는 위험은 위에서 아래로 형성되는 여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조작된 여론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 통치를 위한 정치공학적인 기술로 보다 손쉽게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고리즘 시대의 여론 형성에 미치는 디지털 도구들의 특징은 특히 비가시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하대청, 2018)에서 더욱 더 주목을 요한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중의 생각을 쉽없이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측정, 평가하는 과정으로서의 여론의 데이터화는 사람들의 생각을 측정함으로써 여론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플랫폼 자본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의견이 형성되는 경로를 제약하는

생성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은 여론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동시에 여론, 즉 사람들의 마음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여론 연구는 전통적인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의 조사방법론 상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국한하고 있는 경향에서 탈피해 여론조사, 즉 수량화된 여론이라는 패러다임과 여론의 데이터화 양식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여론의 존재론적 특성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여론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론의 데이터화는 디지털 시대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오퍼티브 감시와 통제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특정한 방향으로 제약하거나 유도하는 프로파간다 기계(Woolley & Howard, 2018)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추출하는 일이 미디어 환경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미디어 중심 데이터 추출 체제(media-centered data extraction regime)’라는 쿨드리와 터로(Turow & Couldry, 2018, p. 421)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론을 인식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주목은 이제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여론이 끊임없이 추출되는 체제’(data technology-centered opinion extraction regime)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 의견의 공개성의 범위와 수준 자체는 지금도 노골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가령, 사회적 비극을 목격하는 대중들이 플랫폼의 뉴스 참여 페이지 란에 ‘슬퍼요’ 또는 ‘화나요’ 같은 표현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구해도, 플랫폼 기업들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환영하지 않는다(조교환, 2022). 소셜 미디어 공간에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일은 디지털 플랫폼의 정치경제학적 이

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 중심 여론 추출 체제에서 작동하는 여론의 데이터화 양식은 데이터화되기 이전 여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의 원천이 ‘표출되는 과정’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더욱 중요한 하지만 숨겨진 이론적 쟁점은 ‘끊임없이 추출되는 여론’이라는 표현이 온당치 못하다는 점이며, 여기서 여론이란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감시를 내면화하는 비침투적 비가시적 감시의 판옵티콘적 원리와 여론의 데이터화 양식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거대 규모로 확인하는 일은 지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에 가까운 발상이었지만 인공지능은 이를 점점 더 쉬운 일로 바꾸고 있다. 여론의 데이터화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주목의 필요성은 이미 여론의 이론적 역사 안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은 아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판옵티콘’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 다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서로간의 관계,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전체를 확인하면서 그 어떤 것도 감시로부터 벗어나거나 그러한 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국가의 목적에 유익하며 강력한 것”(Bentham, 1791/1994)이라고 전망한 벤담의 〈판옵티콘〉 아이디어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인한 감시 패러다임의 귀환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여론의 데이터화를 향한 이러한 전환의 상상들을 여론 연구의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종합하자면, 여론을 궁극적으로 환원시키는 종착지가 개인이 아닌 개인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견의 형식이나 내용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도록 작동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여론 이론의 환원론적 패러다임을 달리 논의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오늘날 데이터화를 통해서 존재하는 여론의 지배적 형식은 여론이 계몽주의적인 18, 19세기적 의미는 물론 여론을 언론, 제도와의 역

동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본 20세기적 의미와 또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여론 연구는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그 차이가 갖는 의미를 밝히는 데 적절한 여론의 성격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기술이 여론 연구에 제공하는 기회와 더불어 그 위험에 대해서도 진단할 수 있는 여론의 이론적 혁신이 요구된다. 과거 여론 연구자들에게 사람들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신문의 저널리즘적 역할, 그리고 미디어와 개인 사이에 위치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비판적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같은 기술 수단을 활용하는 정치경제학적 조정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의견 환경에서 추출되는 여론의 사회정치적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5. 맺음말: 여론 연구의 미래를 위한 함의

여론의 과거는 우리에게 여론이란 어떤 특정한 존재론적 형식 하나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운다. 여론은 거리나 온라인 포럼에서 표현되고, 제도과 위원회의 심의 공간에서 다듬어지며, 이익집단들을 통해 주창되며, 어떤 여론은 언론을 통해 재현되고, 어떤 여론은 사회 담론이나 문화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며 어떤 여론은 과학기술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생산되어 여론조사 결과나 소셜 미디어 지표(검색순위) 같은 수량화된 여론으로 '공표'되기도 한다. 현실에서 여론은 표현되는 여론과 매개되고 구성되는 여론 그리고 추출되는 여론 같이 다양한 양식의 여론들이 중첩되어 공명하는 과정 상에 존재한다. 여론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적인 것이다. 여론에 관한 이들 각각의 존재 형식들은 때로 서로 공명하거나 때로는 상호 갈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하자면, 결국

여론이란 단층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여론의 전체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여론 연구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론에 대한 다양한 인식론적 관점과 이론적 사유의 방식들을 여론 연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여론을 개인으로 환원하여 바라보는 접근에만 의존하거나 여론의 경험적 타당성에만 주목하는 여론 연구는 여론이라는 개념에 대해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인식론적 관점에 따른 여론의 성격에 관해서만 논의할 수 있다는 한계, 즉 여론에 대한 분절적인 이해를 피할 수 없다. 언론학을 포함하여 현대 사회과학의 제도화된 학문 영역들에서 여론 연구들은 여론 현상을 잘게 쪼개고 하나하나 들여다 보는 데 충실을 기해 왔다. 그 결과 여론 연구는 전문화 되고 세분화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하나의 전체로서의 여론에 대한 이론적 시선은 분산되었으며 여론 연구는 하나의 총체화된 연구 대상으로서의 여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점차적으로 상실해 왔다. 여론 연구의 핵심 과제가 여론을 끊임없이 개념화 하는 이론화 작업이라면 총체화된 여론에 대한 개념적 상상이 취약해진 연구 지형이야말로 여론 연구가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사회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배적인 여론의 형식과 의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주목 또한 요구된다. 그러한 주목은 빅데이터 기술과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의 등장과 더불어 여론의 데이터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펼쳐지고 있는 국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론의 데이터화 물결은 여론의 수량화 양식과의 일정한 연관을 갖는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현상, 동시에 여론에 대한 다른 이해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한 중요한 단절을 의미하는 분기점으로 주목할 수 있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여론은 대중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추출된다는 점에서 여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성되는 것이란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해 이용자 선호 즉, 의견의 표출 방식이 제약 당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기능은 여론에 대한 수용자 환원주의, 즉 여론의 최종 심급은 의식적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20세기적 패러다임에 일정한 재설명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통해 끊임없이 여론을 추출하는 체제로서의 디지털 플랫폼 사회의 부상도 여론 개념에 대한 감시와 통제 패러다임적 이해의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하면서 여론에 관한 보다 이론적 혁신을 요구한다.

이러한 이론적 혁신의 방점은 여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념화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여론 개념이 걸어온 역사적 과정 안에서 여론은 더 이상 '의사소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기술적으로 추출되는 것'의 형태로 재정의 되어야 할 필요(Splichal, 2022)가 커졌다. '추출되는 여론'이란 메타포는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은 물론 그 의미와 효과 전반을 둘러싼 새로운 경험적, 규범적 논의를 다층적으로 요구한다. 대규모로 추출되는 여론조사 결과, 선거 빅데이터, 구글 트렌드 같은 사회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공인된 여론 정보들은 숫자의 규모나 분포의 특성에 의해 의미가 조작되는 기호의 형태로 존재하는 반면, 개인, 집단, 군중 혹은 특정한 이슈나 쟁점에 관한 공적 소통을 위해 형성된 이슈 공중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점점 더 여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되는 이론적 경향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여론은 그러한 준-여론적 목소리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검색어 순위, 소셜 미디어 통계 등이 공표될 때, 비로소 여론의 일 형식으로 공인받는다. 언론도 소셜 미디어 상의 지표나 여론조사 결과를 정당하고 타당한 여론의 유일 형식인 것처럼 해석하고 이를 공인된 여론으로 공표하는 기능을 관행처럼 수행하고 있다(유효산·이재국, 2021).

이 반대편에서 여론의 표현적인(expressive) 형식은 과학화된 여론의 인식론적 체계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필터링 되어야 할 현상이지 여론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 간주된다.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소통되는 의견들의 병리화(pathologizing) 또는 여론의 비-실체화

(de-substantializing)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다. 데이터화에 대한 대중적인 기술 비평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병리화나 탈-실체화는 여론 과학에 의해서 의견의 실제 담지자들이 소외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론이라고 불리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인가?’라는 실천적 쟁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¹⁰⁾ 오늘날 여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대상들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론의 형태로 연출되는 의견들의 실체성을 확인하고 의견들이 여론으로 연출되는 과정이 무엇을 은폐하는지를 설명하는 여론의 이론화 작업의 갱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쟁점의 한편에서 여론 이론은 여론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지적 패러다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법한 사고방식의 타당성까지 재검토해야 할 의무도 마주하고 있다. 그 타겟은 아무래도 20세기 이후 여론 연구를 지배한 주된 관점이라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접근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일상 행위자들의 의도적 또는 의식적 상호작용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추출되는 여론은 오늘날에도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구성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20세기 사회적 구성주의론에서 제시하는 구성성과 같은가 다른가? 본고에서 주목한 추출이라는 개념이 계몽주의 시대의 표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출현한 20세기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구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일반화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다만 여론은 “개인은 주체적인 의미의 해석자로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 언론의 담론과 공중의 해석 과정이 끊임없이 상호 교직하는 가운데 생성 변화하는 사회적 담론”(양승목, 1997)이라는 매스 미디

10) 물론 본문에서도 검토한 것처럼 디지털에서 추출되는 여론의 구조적 특성이 여론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고려할 필요 또한 존재한다. 가령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들이 표출하는 의견적인 정보들은 누군가의 의견에 대한 연쇄적 반응들의 묶음이라고 볼 때 추출된 여론에 공중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어 시대의 구성주의 여론관의 전제는 디지털적 조건과는 아귀가 맞지 않는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개인들이 현 시점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의견까지 예측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구성되는 여론은 인간의 능동적 주체적 역할이라는 요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진 않거나, 여론의 형성에 개입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다른 방식과 의미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가령, 거대 인공지능이 ‘여론’을 알려줄 때, 이것은 20세기적 구성과는 달리 새로운 설명 대상이다.

이 지점에서 구성이라는 모델보다는 오히려 계산이라는 모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의견 정보의 수집과 추출이라는 과정도 알고리즘이 계산을 하여 어떤 결과값을 산출하기 위해 수행된다. 추출되는 여론의 형식적 조건을 고려할 때 오늘날 여론에 대한 이론적 관점은 계산주의(computational) 접근을 통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적인 요인들의 무게를 재평가하면서 여론의 형성과 작동을 설명하는 기준 모델을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성주의는 용도 폐기 단계에 다다른 20세기 여론 이론의 패러다임적 유산일까? 연구자는 꼭 그렇지 않은 점에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어 보고자 한다.

구성주의에서는 외부 실재의 무게감이나 의견 자체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위자들의 인지적인 경험과 태도의 변화(혹은 유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무엇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인가”(Pickering, 1992)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여론 연구가 실제 사회에서 여론이 구성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분석적 틀은 극히 제한적이다. 외부 대상의 속성이 저널리스트, 정책 결정자, 전문가, 시민 등 어떤 집단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로만 한정되어 분석될 뿐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비판은 구성주의에 대한 사변적인 반론으로부터만 가능하지 않다. 필자는 그러한 경향이 여론 연구의 역사에서 실재한 문제로 존재했

다고 본다. 가령 미디어의 틀짓기 역할과 수용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현실 해석자로 여론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한 큰 주목이 형성된 20세기 말이 그때다. 당시 여론 연구자들이 “뉴스가 개인의 해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나 개인의 뉴스 해석 변화가 어떻게 집합적 여론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준웅, 1997)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서 새롭게 자리잡은 변수는 ‘해석’이었다. 그런데 이 구성주의 관점은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 해석 과정에 대한 고려를 여론에 대한 이론적 사고 안에 반영하기 위한 의도를 갖는다. 미디어 결정론적 편향을 피하기 위해 구성이라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미디어 결정론을 거부하고 여론에 대한 사람들의 능동적 해석을 강조한 이론적 관심의 진정한 의도는 어쩌면 계몽주의 시대 이래 미실현된 공중에 대한 남아 있는 미련과 관련되어 있을지 모른다. 해석적 개입이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한 여론의 미래는 역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을 계산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역량은 이러한 역동성과 가변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인과 집단의 능동적 해석을 강조하는 미디어-구성주의론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화된 여론 연구들이 받아들인 구성주의가 여전히 여론 연구의 장 내에서 하나의 유산(legacy)으로 존속되고 있다면 그 유산은 ‘미디어와 수용자’라는 협소한 학제적 시야에 국한됨으로써 구성주의의 진정한 미덕을 여론 연구에 프로그래밍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논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연구는 정밀하게 쪼갠 여론 현상의 요소들과 거시적 맥락과 요인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데 지속적인 공백을 겪고 여론의 구성성과 직결된 비실체적 관점, 즉 여론은 실체가 없는 것이란 가정 하에 여론을 사유하는 관념론적 태도에 만족함으로써 인간 의식 외부에 관련된 여론의 - 매우 중요하게도, 의식 외부에 위치하는 - 구조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과소했다.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장점은 행위자와 구조 어느 한편으로 환원하는 사고의 편향을 거부하면서 미시적 요소부터 거시적 조건 사이의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여론 연구자들이 지식사회학으로부터 수입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 최소한 이를 받아들여 여론 연구에 적용한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 피상적이고 협소하게 실천되었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의 거시 수준에서의 구조적 변화는 물론 미시 수준에서 행위자들의 성격과 지위 그리고 관계들이 새롭게 재형성되는 변화 또한 수반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시적 미디어 환경과 사회정치문화적 조건은 물론, 행위자들의 성격이나 지위도,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는 미디어 급변의 시대라면, 여론 현상이 구성되는 방식을 새롭게 써내려 가고, 이를 통해 오늘날 여론의 현재성, 당대성을 재개념화하고 재이론화 해 가야할 시점일 것이다.

따라서 구성주의가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른다. 대신 기존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간과된 맥락과 지점들, 여론 현상에 개입하는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여론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별 요소들에 대한 주목도 주목이지만, 미디어 시스템 자체의 거시적, 구조적 변화에 따라 여론 현상이 재구성, 재조직되는 측면도 설명해 가야 할 과제다. 이러한 주목은 여론 연구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여론 현상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실천적으로 개입하는 여론 학문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에 대한 언론학적 수용은 단순히 미디어-구성주의라는 그간의 분석틀을 넘어서, 여론에 대한 과학지식의 구성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상의 구성성을 기술하고 그 원인과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동시에 현상을 이해하는 여론에 관한 언론학적 지식의 구성성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기 전에 이 글의 한계점을 후속 논의로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지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이 글은 여론 개념에 대한 인식의 역사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한 사회적 맥락의 당대성을 조명하면서 이를 여론에 대한 인식의 통시적 변화 속에서 여론의 여러 존재 형식들과 그것을 인식하는 자세와 태도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그에 따라 여론에 대한 지식적 질서가 변화해 왔는지 그 역동성을 포괄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통시적 기술을 넘어서, 왜 어떤 요인들이 여론에 관한 사고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이 오늘날 여론 연구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다. 여론에 관한 장기간의 지적 역사를 종합하기 위해 조금은 단면적인 기술의 방식에 그친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둘째, 이 글에서 실제로 제기된 학술적인 쟁점은 여론 연구의 - 일종의 -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와 재설정에 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론과 본론에서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다루진 반면, 그 질문 자체를 본론으로 풍부히 다루고 나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배치진 못했다. 이 글은 어쩌면 그러한 질문이 왜 제기될 수밖에 없는가를 여론에 관한 지성사 전체를 재조명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했던 예비적 작업에 가깝다. 앞으로의 여론 연구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집중적 논의는 다른 지면에서 쟁점화하여 다루고, 동시에 미디어 환경의 새로운 변화상과 관련된 이슈와 쟁점들과 연결시켜 고찰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선호 (2012, 5월). <현전하지 않는 제3자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여론의 커뮤니케이션 현상학을 위한 시론>. 한국언론학회 2012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경주.
- 송두율 (2021. 11. 3). 공론(公論) 또는 공론(空論). <경향신문>. URL: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1030300035#c2b>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제17권, 6-40.
- 양승목 (2019). 여론이란 무엇인가?: 여론을 알려거든 먼저 미디어를 이해하라. <신문과 방송>, 2019년 11월호, 6-10.
- 유효선·이재국 (2021). 여론으로서의 소셜미디어: 이념 극단성과 SNS 유형, 이용자 관여의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5호, 286-327.
- 이상길 (2003). 공론장의 사회적 구성: 가브리엘 타르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권 1호, 5-30.
- 이준웅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제17권, 100-135.
- 조교환 (2022. 5. 1). '화나요'가 사라졌다 ... 네이버 개편에 "감정도 막나" 부글. <서울신문>.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SSP0S9I>
- 하대청 (2018). 루프 속의 프레카리아트. <경제와 사회>, 통권 제118호, 277-305.
- Adorno, T. W. (1964/2003). *Meinungsforschung und Öffentlichkeit*. In gesammelte Schriften (Digitale Bibliothek Band 97), 2913-18. Frankfurt am Main: Suhrkamp.
- Albig, W. (1939). *Public opinion*. New York: McGraw-Hill.
- Allport, F. H. (1937). *Toward a science of public opinion*. New York: McGraw-Hill.

- Annoni, A., Benczur, P., Bertoldi, P., Delipetrev, B., De Prato, G., Feijoo, C., ... & Vesnic Alujevic, L.,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A European perspective* (EUR 29425 EN), edited by M. Craglia.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ISBN 978-92-79-97219-5. <https://doi.org/10.2760/936974>, JRC113826.
- Arendt, H. (1964).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 Bentham, J. (1791/1994). Of publicity. *Public Culture*, 6(3), 581-595.
- Bentham, J. (1822/1990). *Securities against misrule and other constitutional writings for Tripoli and Greece*, edited by P. Schofield. Oxford: Clarendon.
-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Anchor Books.
- Bernays, E. L. (1923/1961). *Crystallizing public opinion*. New York: Liveright.
- Binkley, R. C. (1928).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in the social sciences. *Social Forces*, 6, 389-396.
- Blumer, H. (1948). Public opinion and public opinion pol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3(4), 542-554.
- Bourdieu, P. (1972/1979). Public opinion does not exist. In A. Mattelart & S. Siegelau (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1* (pp. 124-130). New York: International General.
- Bryce, J. (1888/1995). *The American commonwealth*. Indianapolis: Liberty Fund.
- Calhoun, C. (Ed.) (1992).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 Childs, H. L. (1965). *Public opinion: Nature, formation and role*.

Princeton: Van Nostrand.

- Converse, P. E. (1987). Changing conceptions of public opinion in the political process. *Public Opinion Quarterly*, 51(Part 2: Supplement), S12-S24.
- Cooley, C. H. (1909).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 Dahl, R. A.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srosières, A. (2016). The quantification of the social sciences: An historical comparison. In I. Bruno, F. Jany-Catrice, & B. Touchelay (Eds.), *The social sciences of quantification: From politics of large numbers to target-driven politics*(pp. 183-204). Cham: Springer International.
- de Tocqueville, A. (1835/2010). *Democracy in America*. Indianapolis: Liberty Fund.
- De Vreese, C. H. (2007). The EU as a public sphere. *Living Reviews in European Governance*, 2(3). Available at: <https://www.europeangovernance-livingreviews.org/Articles/lreg-2007-3/>
- Dewey, J. (1927/1946).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Gateway.
- Fishkin, J. 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 S. (2009). Virtual public consultations: Prospects for internet deliberative democracy. In T. Davies & S. P. Gangadharan (Eds.), *Online deliberation: Design, research, and practice*(pp. 23-36). Stanford: CSLI Publications.
- Fraser, N. (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 Gallup, G. (1938). Testing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1), 8-14.
- Gallup, G. (1957). The changing climate for public opinion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21(1), 23-27, <https://doi.org/10.1086/266682>
- Gallup, G. (1971). The public opinion referendum. *Public Opinion Quarterly*, 35(2), 220-227.
- Gallup, G., & Rae, S. F. (1940). *The pulse of democracy: The public-opinion poll and how it works*. New York: Simon & Schuster.
- Ginsberg, B. (1982, September). *Polling and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opin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Denver, CO.
- Glynn, C. J., Ostman, R. E., & McDonald, D. G. (1995). Opinions, perception, and social reality. In T. L. Glasser & C. T. Salmon (Eds.), *Public opinion and the communication consent*. New York: Guilford Press.
- Goodin, R. E., & Dryzek, J. S. (2006). Deliberative impacts: The macro-political uptake of mini-publics. *Politics & Society*, 34(2), 219-244.
- Habermas, J. (1962/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 Hacking, I. (1990).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baker, B. W. (1993). Taking 'the Pulse of Democracy': George Gallup, Iowa, and the origin of the Gallup Poll. *The Palimpsest*, 74(3), 98-113. <https://pubs.lib.uiowa.edu/palimpsest/article/id/22480/>.

- Hegel, G. W. F. (1821/2001). *Philosophy of right*. (S. W. Dyde, Trans.). Kitchener: Batoche Books.
- Kant, I. (1786). Was heisst: sich im Denken orientiren?. *Berlinische Monatsschrift*, 2, 304-303.
- Kant, I. (1795/1983). *Zum ewigen Frieden. Königsberg: Friedrich Nocolovius*. <https://www.gutenberg.org/files/46873/46873-h/46873-h.htm>.
- Lazarsfeld, P. F. (1941). Remarks on administrative and critical communications research.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9, 2-16.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 Machiavelli, N. (1517/1996). *Discourses on Liv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h, H. (2000). Phantasies of the public sphere: Rethinking the Habermas of historians.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72(1), 153-182.
- Mayer-Schönberger, V., & Cukier, K. (2013). *Big data: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London: John Murray.
- Mills, C. W. (1956/2000). *The power eli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s, C. W. (1959/2000).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2), 43-51.
- Norpoth, H. (2019). The American voter in 1932: Evidence from a confidential survey. *Political Science & Politics*, 52(1), 14-19.

- O'Mahony, P. (2013). *The contemporary theory of the public sphere*. Oxford: Peter Lang.
- Osborne, T., & Rose, N. (1999). Do the social sciences create phenomena? The example of public opinion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0(3), 367-396.
- Park, R. E. (1904/1972). *The crowd and the public*. H. Elsner Jr.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 R. E. (1921). Sociology and the social sciences: The social organism and the collective mind. *American Journal of Social Theory*, 24(1), 1-21.
- Pickering, A. (Ed.). (1992). *Science as practice and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r, T. M. (1986). *The rise of statistical thinking, 1820-190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rter, T. M. (1995). *Trust in numbers: The pursuit of objectivity in science and public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ice, V. (1992). *Public opinion*. Newbury Park, CA: Sage.
- Price, V., & Roberts, D. F. (1987). Public opinion processes. In C. R. Berger & S. H. Chaff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Newbury Park, CA: Sage.
- Ross, E. A. (1901/1969). *Social control: A survey of the foundations of order*. Cleveland: The Press of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Rousseau, J.-J. (1762/1994). *The social contract or principles of political right* (C. Betts, 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vage, M., & Burrows, R. (2007). The coming crisis of empirical sociology. *Sociology*, 41(5), 885-899.

- Schmitt, C. (1928/1954). *Verfassungslehre*. Berlin: Duncker & Humbolt.
- Smith, M. C. (1994). *Social science in the crucible: the American debate over objectivity and purpose, 1918-1941*.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Splichal, S. (1999). *Public opinion: Developments and controversies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 Splichal, S. (2022). *Datafic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public sphere: How extraction replaced expression of opinion*. London: Anthem Press.
- Tarde, G. (1901/1989). *L'Opinion et la Foule*. Paris: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Thurstone, L. L. (1928). Attitudes can be measur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33, 539-554.
- Tönnies, F. (1922). *Kritik der öffentlichen Meinung*. Berlin: Julius Springer.
- Turow, J., & Couldry, N. (2018). Media as data extraction: Toward a new map of a transformed communications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68(2), 415-423.
- Warner, L. (1939). The reliability of public opinion surveys. *Public Opinion Quarterly*, 3, 376-390.
- Whatmore, R. (2015). *What is intellectual history?* London: Polity.
- Woolley, S. C., & Howard, P. H. (2018). *Computational propaganda: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political manipulation on social me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투 고 일 자: 2023년 03월 04일

심 사 일 자: 2023년 05월 04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05월 23일

Abstract

Does the Past of Public Opinion Help the Future of the Study of Public Opinion?

Reviewing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in Intellectual History and Finding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Public Opinion Research

Yong-Min Ryu

Assistant professor, Media-Communication Dept. of Inje University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has been used uncritically and customarily not only in everyday life but also in academic discussions. The prevailing character of public opinion, however, has never historically been sustained in a single or uniform form. Public opinion has undergone continuous changes in meanings in different ontological forms according to changes in sociopolitical or technolog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the time. In order to capture the current nature of this concept of public opinion as a whol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fragmented public opinion researches that relies on mechanistic reasoning and then look at the long history of theoretical discussions on public opinion. This article attempts a prospective work to recover the claims, critical minds, and theoretical practices formed in the long course of the academic history of public opinion to elongate the perspectives that can enrich today's public opinion research.

KEYWORDS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research, paradigm, expression, extraction, computation, constructivism, enlightenment